

2017년 5월 14일, 성산읍 신풍리 신풍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강옥금(여, 1950년생, 성산읍 신풍리)

- 줄거리: 힘센 마누라가 남편을 지붕 위에 던져버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편에게 왜 거기 올라갔느냐고 물으니 호박 따러 왔다고 딴청을 피우는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옛날에 이 동네, 그런 말 헌, 역사가 잊어. 이장을 낫는다. 마누라가 너미 힘이 췬여. 힘이 췌니까, 주위에서는 이장님, 이장님, 헷는다. 그 주위에서 이젠 신랑을 앗아낳 (불청) 지붕 우터레 확 데껴노난, 확 데껴버리니까. 놈덜은 이제, 주위 사름은 와네

“아, 그디 무시거 허레 올란?”

“여기 호박 타레 올라왓수다.”

허멍, 그즈름 말햇던 헌 역사는 잊어마씀, 이 동네에. 게난 그 주위 사름은

“아이고, 이장 웨난, 각시한테 전에, 저, 초가집이 올라갓단 호박 타레 올라가고렌 헷이네.”

허멍, 여기 완 그 말은 들은디, 그 이상 재미진 말은 못 들어봤어.

- 핵심어 : 마누라, 이장, 지붕, 호박, 각시, 신랑